

자유로운 형식 실험, 새천년 고대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 잉태

고려대학교의 건축물과 역사 18

고대 건축의 새로운 경향: 타이거플라자와 해송법학도서관, 그 이후



정경대 후문 언덕을 올라가면 마주치는 타이거플라자. 학생편의 시설인 이 건물은 유리매스의 밝고 경쾌한 분위기에 날카로운 모서리를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 황금빛 사과조형물로 모교 건축물 중 가장 포토존이 많은 건물이다.

석조고딕의 모티브가 고려대학교의 건축적 기조를 이끈 부동의 패러다임이었지만, 그러한 동질성의 큰 틀 속에서도 건축의 다양성이 꾸준히 시도돼왔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다. 이로써 본교의 건축은 온건하게나마 시대의 흐름에 대응했다고 하겠다. 다소 늦긴 했으나 1960~70년대 불어온 모더니즘의 바람이 그렇고, 1980~90년대 이래 현대화된 건축물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설령 2000년대 초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분위기 하에 석조고딕의 모티브가 확장되며 더욱 빈번히 통용됐을지라도, 그 틈새 가운데 전례의 상징성과 대비되는 새로운 건축적 경향을 선보인 예가 여럿 존재한다.

지난 호에 서술했던 중앙광장(1999~2002)과 하나스퀘어(2005~06)가 옥외 공간의 조경과 지하 공간의 개발 측면에서 그랬다면, 개별 건축물 중에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 몇몇이 거론될 수 있겠으나, 우선 타이거플라자(2004)를 보자. 이 건물은 지금까지 살펴본 건물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바로 그 까닭에 오히려 더 눈길을 끈다. 소규모가 내포하는 (학교의 핵심 시설과 무관한) 비중 심성 혹은 주변성이 고딕 석탑의 묵직한 기조로부터의 상대적 자유를 뜻할 뿐 아니라, 스케일이 작은 만큼 사용자를 압도하지 않는 친근감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더 밝고 경쾌하게! 타이거플라자(2004)

2004년 여름, 국제관 옆에 세워진 이 건물은 레스토랑, 카페, 편의점 등을 담은 학생 편의시설이다. 설계는 본교 건축학과 여영호(건축공75) 교수가 에이스종합건축과 함께 담당했다. 원래의 건축대지는 국제관과 정경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삼각형 모양의 좁다란 자투리땅이었고, 가용 건축면적은 기껏해야 100평을 넘지 못했다. 그럼에도 타이거플라자에는 나름의 확고한 아이덴티티가 요청됐다. 정경대 후문의 사용자는 기숙사나 안암역 쪽에서 등교하는 학생들로 인해 정문 사용자보다 많은데, 이들의 태반이 이 건물

앞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대지가 작고 비정형이라는 제약은 오히려 여타 건물들과는 다른, 흥미로운 설계를 가능케 했다. 게다가 강의나 연구가 아닌 편의시설이라는 프로그램의 과외성도 이를 뒷받침하는 인자다.

건축가는 이 건물을 철골조로 하고 유리커튼월로 벽면 전체를 마감해 밝고 개방된 느낌을 부여했다. 이러한 개방성은 2층과 4층 테라스의 오픈 데크를 통해 더욱 강화된다. 여기 더해 대지에 맞춘 쉼기모양의 평면이 날카로운 유리 모서리를 만드는데, 굳이 그 형상을 따지자면 말 그대로의 '첨단(尖端)'을 (테크놀로지의 첨단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보여준 셈이다. 물론 주변 석조 건물과의 교감도 필요하니, 건축가는 이를 위해 유리 벽면에 반투명의 에칭 패턴을 입힌다(《건축문화》, 2005.8). 그럼에도 이 건물의 유리 매스는 밝고, 경쾌하고, 날렵해, 육중했던 기존의 캠퍼스 분위기에 참신한 맛을 선사할 수 있었다. 얼마 후, 건물 4층 테라스의 모서리에는 황금빛의 커다란 사과 조형물이 설치된다. 조형학부 강희덕 교수의 작품으로 학교의 경직된 이미지와 건물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이를 커다란 조각 케이크 위의 토핑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고려대학교 건축물 가운데 가장 포토존이 많은 제스처를 취하게 됐다고 할 만하다.

금속외장 박스의 과감한 돌출, 해송법학도서관(2006~07)

한편, 타이거플라자 못지않게 참신한 근래의 건축 사례에는 해송법학도서관(2006~07)이 있다. 이 건물은 법학전문대학원 개원을 준비하던 본교가 해송 정유근 선생의 기부로 건축할 수 있었는데,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면적 3,670㎡(약 1,110평)를 갖는 국내 단과대학 최대 규모의 도서관으로 계획됐다. 여기에 4만권에 가까운 장서가 구비됐고 열람실을 비롯한 다양한 법과대학 시설이 들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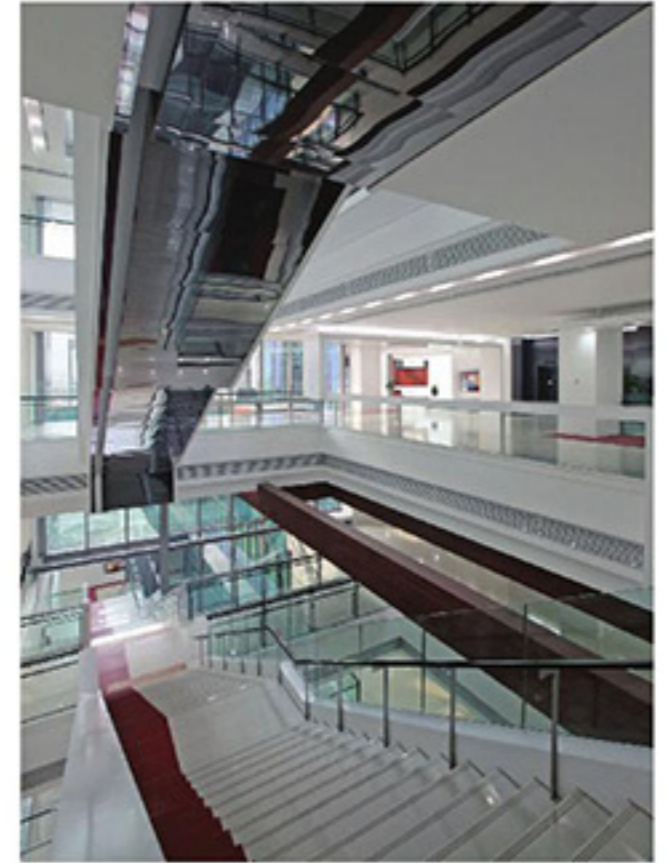
해송법학도서관의 중요한 디자인 특성으로는 먼저, 건물 2~3층의 사각 박스를 하부 지지체가 생략된 캔틸레버(cantilever)로 만들어 과감히 돌출시켰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또한 화강석과 무관한 티타늄아연판을 주요 외장재로 사용한 점 역시 두드러진다. 두 가지 특성 모두 당시까지의 고려대학교 건축에 적용된 바 없는 신선하고 도전적인 시도였다. 사적(史蹟)으로 지정된 중앙도서관 뒤에 위치해 문화재청의 심의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이 이처럼 기존 고딕 석탑의 직접적 영향으로부터 교묘히 비껴갈 수 있었음은 특기할 만하다. 같은 시기 바로 옆에 건축된 고딕양식의 동원글로벌리더십홀(2006~07)과 비



해송 정유근(행정67) 교우의 기부로 건축한 해송법학도서관은 금속외장의 사각박스를 과감히 돌출시키면서도 회색조 금속판의 굴곡진 울음현상으로 모교 건축물의 석탑 기조와 현대적 조화를 이룬다. 준공된 해인 2007년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보는 각도에 따라 입면이 변하는 다변성이 특징인 미디어관(왼쪽)과 1층 로비에서 지하 3층까지 이르는 계단의 연속성이 특징인 현대자동차경영관의 실내 계단실. 2000년대 이후 세워진 모교 건축물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고대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교하면 그 차별성이 쉽게 간파된다. 그렇다고 이 건물이 주변의 석탑과 꼭 단절된 것만도 아니다. 설계를 맡은 이래 건축이 강조했듯(《건축문화》, 2007.5) 티타늄아연판의 색채를 화강석과 유사한 회색조로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이 금속판의 완만히 굴곡진 울음현상이 거친 화강석 재질과 현대적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요컨대 해송법학도서관의 과감한 매스 구성과 최신 건축재료 도입은 고풍스러웠던 본교 캠퍼스에 또 다른 건축적 행로를 시사했다고 하겠다. 이 건물은 준공된 2007년도에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을 수상한다.

타이거플라자와 해송법학도서관 이후에도 여러 건물에 주목할 만한 건축요소가 도입됐다. 예컨대, 미디어관(2009~11)은 평면의 다변성을 반영하듯 보는 각도에 따라 입면이 변하는 점이 독특하고, 현대자동차경영관(2011~13)의 경우 1층 로비에서 지하 3층까지 이르는 연속 계단이 공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도 막힘없이 흐른다는 특징이 있으며, 아직 공사 중인 미래공학관(2013~)은 금속판으로 마감된 일련의 정면 수직 루버가 미묘한 각도로 꺾여 보행자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 같은 실험들은, 여전히 온건하지만, 새천년 고딕 석탑의 숲 가운데 새로운 건축의 가능성을 잉태할 작은 씨앗으로 역할하리라 기대된다.



김현섭(건축공92) 모교 건축학과 교수